39 이상은 이상일 뿐, 환상에 사로잡히지 말지어다

• 플라톤이 제창한 이데아는, 쉽게 표현하면 '상상 속의 이상형'이다. 현실 세계에는 이데아가 존재하지 않고 천상계에만 있다고 믿었다. 그리고 현실 세계의 모든 것은 이 천상계에만 존재하는 이데아가 '열화 복제'된 것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 인공지능에서는 '조건에 의한 분류'라는 접근을 단념하고 수많은 개와 고양이의 사진을 기억하게 해서 통계적으로 '이것은 개' 또는 '이것은 고양이' 라고 판단하게 하는 '기계학습 접근법을 채택하여 높은 정확도로 개와 고양이를 분류하고 있다.
만약 우리가 인공지능에게 '개의 이데아'나 '고양이의 이데아'를 심어 놓을 수 있다면 대량의 데이터를 기억시키는 미련한 방법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 플라톤의 수제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사후에 이데아론에 대하여 계속 비판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비판은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졌는데, 일괄적으로 정리하자면 현실적으로 검증할 수 없는 가상을 사고의 입각점에 두는 일은 소용없다는 것이다. 공상 속의 개념을 가지고 농락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눈앞의 현실을 똑똑히 관찰하는 방법을 사고의 입각점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사고관이었다.

• 플라톤은 저서 [국가]에서 국가의 이데아를 아는 사람이야말로 정치를 해야 한다는 '철인 정치'를 줄곧 주장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떠했는가? 플라톤은 실제로 철인 정치를 실현하기위해 시라쿠사의 왕 디오니시우스 2세의 후견이었던 제자 디온에게 부탁받아 시칠리아로 건너가 왕을 교육시키고자 했다. 하지만 정쟁에 휘말려 감금당하는 등 위험에 처하게 되자 간신히 도망쳐 아테네로 돌아온다. 플라톤의 이상론은 이처럼 보기 좋게 실패했다.